

나눔공간, 복지플랫폼 자리매김

익산, 약 두달간 2400여명에 1억2천만원 혜택 제공 자발적 기부로 운영 '기부공간' 과 연계 전국적 반향

익산나눔·기부공간이 기부와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복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내에 문을 연 '나눔공간'은 개장 두 달 만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를 위한 최대 지원 군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먼저, 익산시가 보내 최초로 추진한 나눔공간에서는 후원물품을 무료로 지급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돕는다.

운영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시민이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나눔공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나눔공간의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물품의 수급조절을 위해 하루

에 120명에서 13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대기자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점 덕분에 나눔공간은 운영을 시작한 지 약 두 달만에 2천4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원한 물품은 약 1억2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나눔공간은 가구당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가구가 추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 결정을 위한 읍면동 상담을 거쳐 정부의 긴급복지 및 익산형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의 대상을 정부기준보다 대폭 확대된 중위소득 100%로 적

용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긴급 생계비는 1인당 4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약 3개월 동안 524명,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익산나눔공간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데는 기부공간의 역할이 컸다.

나눔·기부공간은 시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공간이 채워져야 할 위기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간에 모아진 기부금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함으로써 나눔과 연대라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실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기부공간에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부행렬이 이어지면서 지난 28일 기준 242건, 3억9천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이 모였다. 이에 대해 최근 익산시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기부공간에 생활용품과 식품을 기부해준 328곳의 시민, 단체, 기업 등에 감사서한문을 보냈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학교와 익산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발전 및 원광대 졸업생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원광대-익산상의, 상호협력 협약체결

지역경제 발전·고용 활성화 노력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익산상공회의소(회장 김원오)가 지역경제 발전 및 원광대 졸업생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최근 박맹수 총장과 김원오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대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번 협약은 박맹수 총장과 김원오 회장이 최근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및 청년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지역과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및 해결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아 이루어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업체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원광대 최고정책관리자과정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지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상호 간에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맹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기관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보자는 김원오 회장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시가 변형했던 시대를 재현하고, 양 기관의 모든 임직원이 함께 큰일을 이루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 및 지역과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순항

군산시, 수협 및 어촌계 대상 추진상황 설명회 개최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모사업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이 순항중에 있다.

시는 29일, 수협 및 어촌계협의회 약 2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국비 35억원 규모로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공동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료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커뮤니티 분석을 시행해 해상풍력 사업의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날 주관기관인 전력연구원은 풍황

자료 조사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 풍황자료 분석 계획에 대한 사업 기간 내 계획자료 수집을 위한 계획기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또, 지역 사회영향 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이해관계자 조사 분석 결과와 시민포럼 및 어민 워크숍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공제보험 가입으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

재해복구공제 579건, 영조물배상공제 1489건 등록 완료

익산시가 공유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복구·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대비와 공유재산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국지방공제회에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은 크게 두 종류로 익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이하 공

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우선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손해보험사를 통해 재해 복구비를 지급한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사를 통해 시민이 배상받

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관리 하자를 비롯해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재해복구공제 579건과 영조물 배상공제 1천489건에 대해 정기등록을 완료했다.

그 결과 공제 보험비용은 총 6억8천만원으로 향후 추가되는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제에 가입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심리지원'

군산시보건소, 화상 상담 지원등 비대면 서비스

군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재난대응인력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의료인력의 '일·쉼'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감정적 고갈, 냉소, 효능감 저하등의 번아웃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한편, 코로나19 치료·방역 인력의 69.7%가 업무와 관련해 울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군산시는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메시지 카드를 배포해 상담서비스를 알리고 내 마음 미주하기 등의 주제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리회

복탄력성 제고 등 심리방역에 힘쓰고 있다. 시는 마음건강평가 결과 위험군으로 나타난 대상에 대한 마음건강 자가검진, 심리상담등을 통한 심층상담을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 화상 상담 지원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최전방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우울감, 압박감 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 건강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지금도 최전방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재난 대응 인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심리방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군산시, 내과 등 3곳 지정

군산시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3곳을 지정해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체계적인 검진과 치료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역 내 총 3곳으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대표자 김경숙), 전북대학교병원(대표자 조남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대표자 김성의)이다.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료 체계가 구축돼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3·1운동100주년기념관 5월 31일까지 사진전 개최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오는 5월 31일까지 1919년 3·1만세시위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날의 기록을 담은 <3·1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다.>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각계각층,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규모 민족해방 운동인 3·1만세시위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사진과 군산의 3·1만세시위 활동 기록을 전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한다. 1부 <민족자결주의 독립의 희망을 품다.>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현장과 국내외 독립단체, 2부 <3·1 만세> 함성이 울려 퍼지다.>는 2·8독립선언과 3·1만세시위 운동, 3부 <군산의 3·1만세시위>는 군산에서 벌어진 독립선언서 배포·만세시위·방화 사건·법정 시위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 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에 개관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호국보훈의 산 교유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